

재미 한인대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과 음주문제

이 순 희

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Drinking Problems of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Lee, Soon Hee

Department of Nursi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Jeungpyeong,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predictors of drinking problems in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Methods:** The subjects involved this study were 190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Data were measured using a drinking problems questionnaire,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and the CES-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17.0 program to calculate mean, standard deviation, ANOVA, Sheffé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1) The mean score of the degree of perceived acculturative stress was 2.15 ± 0.63 , of depression was 17.67 ± 9.85 , and of drinking problems was 15.03 ± 15.52 . 2)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drinking problems ($r=.506, p<.001$), between depression and drinking problems ($r=.6726, p<.001$), and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r=.453, p<.001$). 3) I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drinking problems were acculturative stress ($\beta=.243, p<.001$), and depression ($\beta=.562, p<.001$).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practical implications for reducing the acculturative stress and improv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Korean students were discussed.

Key Words: Drinking, Acculturation, Depressio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입시과열과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최고의 방법으로 유학이 선호되어 왔다. 2000년대 이후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11년 현재 미국 전국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대학생 수는 73,351명으로 중국,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되었다. 그

중 중서부 13개 주에 재학 중인 한인대학생 수는 전체의 24%로 인디애나 주에만 2,574명의 한인학생이 대학을 다니고 있다(Park, 2011). 이와 같은 유학생 증가는 새로운 가치관과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며 무한경쟁시대에서 한국의 생존을 보장하는 강력한 대응전략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Kim, 2005). 그러나 무분별한 해외유학과 조기유학 등으로 인한 사교육비 낭비, 계층 간의 불평등 심화 같은 사회문제와 유학생의 현지 생활과 학교생활 부적응, 잘못된 정체성 형성 등을 초래하였다는 부

주요어: 문화적응, 우울, 음주

Corresponding author: Lee, Soon Hee

Department of Nursi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61 Daehak-ro, Jeungpyeong 368-701, Korea.
Tel: +82-43-820-5188, Fax: +82-43-820-5173, E-mail: nhlee@ut.ac.kr

- 이 논문은 2011년도 한국교통대학교의 해외파견연구교수지원금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The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2012 program for visiting professors overseas i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투고일: 2012년 9월 14일 / **심사완료일:** 2012년 12월 7일 /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14일

정적 견해도 팽배하다(Park, 2009).

타국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 원인을 문화적응 스트레스라고 한다(Zhang, 2009). 이런 맥락에서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차별, 언어적 문제, 학비 및 기타 경제적 문제, 사회적 적응문제, 고국에 대한 향수, 개인의 역할갈등 등으로 타국 문화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Koung, 2010) 다양한 차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불안, 소외감, 심각한 신체증상, 정제감 혼란 같은 일련의 스트레스 행동을 유발한다(Suh, 2006).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다양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대표적으로 우울증상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Oh, Koeske, & Sales, 2002). 아시아 민족을 대상으로 연구한 Koung (2010)의 연구결과에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한 경향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고하였다. 우울은 불면증이나 소화장애와 같은 가벼운 신체적 증상과 사고력이나 주의집중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자살에 이를 수도 있다(Koung, 2010). 자신의 문화를 떠나 타국의 문화에서 생활하는 재미 한인대학생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로 신체적, 정신적 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떠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재미 한인대학생들이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를 경험하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로 음주문제가 있으며 대학생들의 무분별한 음주행위는 주된 건강 관련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Shin, 2009).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적응과 알코올 소비 간에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Koung, 2010). Yoo와 Kim (2010)은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는 물질남용이나 음주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많은 재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 해소를 위해 음주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과도한 음주는 행동 억제 능력을 약하게 하고 비행으로 이어지기 쉬워 폭력이나 성적 행동, 동료와의 다툼과 같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Ha, 2010).

미국의 경우도 대학생의 폭음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대학캠퍼스 내의 과음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Shin, 2009). 실제로 통계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내 한인대학생 사이에서는 폭음으로 인한 우발적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음주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생 시기의 경우 바람직하지

못한 건강행위는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미국 내 한인대학생들이 바람직한 건강증진행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음주문제 관련 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된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음주문제, 스트레스와 우울,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Ha, 2010)와 대학생 음주규범 지각과 음주 및 음주문제의 관계(Shin, 2009), 여자 대학생의 음주문제 영향요인 분석(Chung, 2007), 그리고 중국대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과 음주 문제에 미치는 영향 등 국내 대학생과 국내 거주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음주문제를 다룬 통합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미 한인대학생들의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연구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음주문제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음주문제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재미 한인대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음주문제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재미 한인대학생의 건강증진 행위를 유지하기 위한 음주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음주문제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음주문제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음주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재미 한인대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과 음주문제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상관관계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미국 I주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대상자는 연구목적 이해하고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으며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로 하였다. 연구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가 107명인 것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대상자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탈락자를 고려하여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중에서 230부만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불충분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1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였다. 자료수집방법은 한인 교회와 천주교, 한인 학생회의 동의와 협조를 받아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직접 설명한 후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시행하였다. 연구참여 시 유익성과 불이익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자료에 대한 익명성 등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연구진행 과정에서 언제든지 원치 않을 경우 참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과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철저히 하게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대상자에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스스로 응답케 한 후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대상자들이 설문지를 응답하는 데는 평균 15~20분 이내가 소요되었다.

4. 연구도구

1) 음주문제

음주문제는 Shin (1998)이 개발한 음주문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기능손상, 행동상의 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없음” 0점에서 “거의 항상” 4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 관련 문제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점수 범위는 0점에서 80점까지이다. 개발당시 본 도구의 신뢰계수 Cronbach's $\alpha = .94$ 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계수 Cronbach's $\alpha = .97$ 로 나타났다.

2)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Sandhu와 Asrabadi (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Lee (1997)가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으로 차별감 6문항, 향수병 5문항, 적대감 5문항, 두려움 3문항, 문화충격 3문항, 죄책감 2문항, 기타 10 문항의 일곱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Lee (1997)의 연구에서 신뢰계수 Cronbach's $\alpha = .935$ 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계수 Cronbach's $\alpha = .962$ 로 나타났다.

2) 우울 정도

우울 정도는 Chon, Choi와 Yang (2001)의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우울정서, 긍정적 정서, 대인관계, 신체적 기능저하에 따라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극히 드물다” 0점에서 “대부분 그렇다” 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가능한 점수분포는 0점에서 60점이며 문항 중 긍정적 의미인 4, 8, 12, 16 문항은 역환산하여 분석하였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계수 Cronbach's $\alpha = .80$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계수 Cronbach's $\alpha = .90$ 로 나타났다.

5. 자료분석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는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대상자의 음주문제,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문제,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é test로, 대상자의 음주문제,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정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재미 한인대학생의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선택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총 190명으로,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58.9%로 여학생의 41.1%보다 약간 많았으며 연령은 18~43세의 범위로 평균 24.92 ± 4.98 세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결혼 상태는 미혼이 92.1%로 대부분이었으며 경제적 수준은 78.4%가 “중”, 17.4%가 “상”이라고 응답하였다. 대상자는 1~2학기, 3~4학기가 각각 48.9%, 47.9%로 비슷하게 많았으며 5~6학기 이상은 2.6%였다. 과정은 학사가 69.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석사(22.6%), 박사(7.9%)의 순이었다. 대상자 중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86.3%로 무교 13.2%보다 많았으며 거주형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73.2%로 가장 많았고 기숙사가 20.0%, 하숙, 자취가 6.8%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은 가입한 동아리가 없는 경우가 55.8%로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 44.2%보다 많게 나타났다. 동거가족은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66.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친구들과 동거(19.5%), 기타(7.9%), 친척(5.8%)들과 동거하는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 빈도는 1개월에 1~2회가 62.6%로 가장 많았으며 3~4회가 15.3%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이 마시는 술의 종류는 맥주가 48.4%로 가장 많았으며 소주, 와인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음주시작 연령은 10~24세의 범위로 평균 18.67 ± 1.96 세로 나타났으며 음주량은 1일 0~15잔의 범위로 평균 2.75 ± 2.73 잔이었다. 대상자의 흡연경험에 있어서는 흡연경험이 있다가 73.2%, 흡연경험이 없다가 26.8%로 나타났다. 흡연을 할 경우 흡연량은 1일 0~3개피의 범위로 평균 0.25 ± 0.48 개피로 나타났다. 1일 인터넷 사용시간은 안 한다는 경우부터 960시간의 범위로 평균 174.01 ± 170.59 분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미국 거주 기간은 1일에서 264일의 범위로 평균 47.43 ± 36.73 이었으며 영어 수준은 수업듣기 가능한 중정도

의 수준이 42.6%, 말하기 듣기 쓰기가 유창한 최상의 수준이 32.1%로 나타났으며 생활회화 정도만 가능한 기초 수준이 25.3%였다.

2. 대상자의 음주문제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정도

대상자의 음주문제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정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음주 관련문제는 평균 15.03 ± 15.52 에 최소점수 0점, 최대 점수 58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평점으로는 5점 만점에 1.75점으로 나타났다. 각 세부 영역으로는 행동상의 문제가 평균 5.67 ± 6.50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사회적 기능손상(5.12 ± 4.81), 가족과 대인관계 손상(4.23 ± 4.68)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같은 도구의 다른 논문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평균평점을 구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2.15점이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세부영역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향수병으로 평균 2.23 ± 0.65 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문화적 충격(2.22 ± 0.78), 차별감(2.22 ± 0.70)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총점 60점 만점에 평균 17.67 ± 9.85 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평균 평점으로 환산하면 3점 만점에 0.89점으로 중간보다 낮게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문제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과 음주문제 정도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Table 1. Descriptive of Drinking Problems,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N=190)

Variables	Range	M±SD	Cronbach's α
Acculturative stress	1~5	2.15±0.63	.96
Sense of discrimination	1~4	2.22±0.70	
Homesickness	1~4	2.23±0.65	
Sense of hostility	1~4	2.00±0.72	
Fearfulness	1~5	2.04±0.75	
Cultureshock	1~4	2.22±0.78	
Guilt feeling	1~5	1.94±0.80	
Others	1~4	2.19±0.66	
Drink problems	0~58	15.03±15.52	.97
Job & Social function impairment	0~17	5.12±4.81	
Behavioral problem	0~25	5.67±6.50	
Family & interpersonal relationship impairment	0~17	4.23±4.68	
Depression	0~48	17.67±9.85	.90

대상자가 지각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대상자의 결혼여부($t=-5.31, p<.001$), 학년($F=3.88, p=.022$), 과정($F=8.11, p<.001$), 동거가족($F=4.01, p=.009$), 술의 종류($F=4.87, p=.003$), 흡연경험($F=2.65, p=.009$), 영어 수준($F=5.12, p=.007$), 연령($r=.154, p=.034$)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t=1.40, p=.163$), 경제적 수준($F=0.60, p=.528$), 종교 유무($t=1.83, p=.069$), 동아리 참석여부($t=1.37, p=.173$), 음주 빈도($F=1.20, p=.313$)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사후 검정의 결과에서는 과정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이는 박사과정보다 학사과정에서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술의 종류에 따라서는 맥주보다 소주를 마시는 집단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서는 생활회화수준만 가능한 집단이 수업듣기가 가능한 집단과 말하기 듣기 쓰기가 유창한 집단보다 점수가 높았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우울 정도는 대상자의 결혼여부($t=-4.83,$

Table 2. The Differences of Drinking Problems,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according to Subjects's General Characteristics (N=19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Drinking problems	t or F (p)	Acculturation stress	t or F (p)	Depression	t or F (p)
			M±SD		M±SD		M±SD	
Gender	Male	111	17.21±15.33	2.35 (.020)	74.85±22.02	1.40 (.163)	17.53±9.90	0.23 (.815)
	Female	74	11.90±15.34		70.42±20.59		17.88±9.84	
Marital status	Married	15	3.67±7.55	-5.41 ($<.001$)	66.73±20.22	-5.31 ($<.001$)	11.13±4.87	-4.83 ($<.001$)
	Single	170	16.00±15.65		73.57±21.58		18.25±9.98	
Economic status	High	33	15.42±18.36	0.19 (.828)	69.24±19.71	0.60 (.528)	18.21±11.06	0.15 (.860)
	middle	149	14.77±14.86		73.91±21.51		17.47±9.41	
	Low	8	18.13±16.69		72.25±28.97		19.00±13.43	
Grade (year)	1st, 2nd	91	12.73±14.29	2.20 (.114)	68.74±21.34	3.88 (.022)	16.46±9.92	1.49 (.228)
	3th, 4th	88	17.44±16.68		77.46±21.23		18.99±9.73	
	5th, 6th	5	12.60±12.16		73.00±18.83		18.40±9.76	
Degree course	Bachelor's ^a	130	19.33±15.79	20.01 ($<.001$) a > b, c	77.05±20.59	8.11 ($<.001$) a > c	19.60±10.24	11.38 ($<.001$) a > b
	Mster's ^b	42	5.19±9.06		64.09±19.51		11.69±6.06	
	Doctor's ^c	13	5.33±9.88		63.33±25.17		17.69±8.46	
Religion	Have	159	15.85±16.06	2.35 (.023)	74.16±21.38	1.83 (.069)	18.26±10.10	2.60 (.013)
	None	25	10.20±10.28		65.76±21.76		13.88±7.41	
Participation of group activity	Yes	82	19.26±16.99	3.35 ($<.001$)	75.49±24.01	1.37 (.173)	19.05±11.05	1.66 (.099)
	No	103	11.67±13.39		71.08±19.18		16.57±8.68	
Living with	Alone ^a	125	18.02±15.50	6.66 ($<.001$) a > d	76.60±22.62	4.01 (.009)	19.22±10.34	3.82 (.011)
	Friend ^b	35	10.08±13.67		64.14±14.81		14.71±7.32	
	Parents ^c	10	14.27±19.06		71.27±19.58		16.80±11.60	
	Others ^d	15	2.47±5.83		66.07±20.46		12.20±5.96	
Frequency of alcohol drinking	1~2 time/month	117	15.39±16.25	2.13 (.079)	72.03±20.82	1.20 (.313)	18.31±10.39	0.38 (.636)
	3~4 time/month	28	17.21±14.51		76.03±20.59		17.68±9.90	
	1~2 time/week	23	16.13±14.03		79.22±21.74		14.78±6.24	
	3~4 time/week	11	14.00±14.60		70.73±25.84		16.73±11.86	
Type of alcohol	Beer ^a	91	11.83±12.90	4.39 (.005)	68.51±19.03	4.87 (.003) a < b	14.71±8.86	4.59 (.004)
	Soju ^b	28	22.17±17.46		83.90±20.79		19.25±8.83	
	Wine ^c	22	15.43±17.00		75.17±15.66		20.36±9.01	
	Others ^d	21	19.86±16.76		77.76±26.61		20.95±11.86	
Current smoking	Yes	134	24.29±13.99	5.34 ($<.001$)	79.75±22.47	2.65 (.009)	16.62±9.32	2.38 (.018)
	No	51	11.63±14.68		70.57±20.68		20.43±10.75	
Level of english	Basic conversation ^a	47	26.04±14.15	20.31 ($<.001$) a > b, c	81.44±19.73	5.12 (.007) a > b, c	22.91±10.98	11.10 ($<.001$) a > b, c
	Moderate ^b	78	9.99±13.69		70.10±22.77		14.81±9.42	
	Excellent ^c	60	13.05±14.70		70.31±19.60		17.28±7.74	

$p < .001$), 과정($F=11.38$, $p < .001$), 종교유무($t=2.60$, $p = .013$), 동거가족($F=3.82$, $p = .011$), 술의 종류($F=4.59$, $p = .004$), 흡연경험($t=2.38$, $p = .018$), 영어수준($F=11.10$, $p <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t=0.23$, $p = .815$), 경제적 수준($F=0.15$, $p = .860$), 동아리 참석여부($t=1.66$, $p = .099$), 학년($F=1.49$, $p = .228$), 음주빈도($F=0.38$, $p = .636$)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후 검정의 결과에서는 과정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학사과정이 석사과정보다 우울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영어수준에 따라서는 생활회화수준만 가능한 집단이 수업듣기가 가능한 집단과 말하기 듣기 쓰기가 유창한 집단보다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음주문제 정도는 대상자의 성별($t=2.35$, $p = .020$), 결혼여부($t=-5.41$, $p < .001$), 과정($F=20.01$, $p < .001$), 종교($t=2.35$, $p = .023$), 동아리 활동참여여부($t=3.35$, $p < .001$), 동거가족($F=6.66$, $p < .001$), 술의 종류($F=4.39$, $p = .005$), 흡연경험($t=5.34$, $p < .001$), 영어수준($F=20.31$, $p < .001$)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경제적 수준($F=0.19$, $p = .828$), 학년($t=2.20$, $p = .114$), 음주빈도($F=2.13$, $p = .079$)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후 검정의 결과에서는 과정에 따른 음주문제의 차이는 학사과정 집단이 석사와 박사과정 집단보다 음주문제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동거가족에 따라서는 기타보다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음주문제 점수가 높았으며 영어수준에 따라서는 생활회화수준만 가능한 집단이 수업듣기가 가능한 집단과 말하기 듣기 쓰기가 유창한 집단보다 음주문제 점수가 높았다.

4. 대상자가 지각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과 음주문제 정도와의 상관관계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과 음주문제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Correlations among Perceived Drinking Problems,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N=190)

Variable	Drinking problems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r (p)	r (p)	r (p)
Drinking problems	1	.506 ($< .001$)	.672 ($< .001$)
Acculturative stress		1	.453 ($< .001$)
Depression			1

대상자가 지각하는 음주문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r = .506$, $p < .001$)와 우울($r = .672$, $p < .001$)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가 지각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도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453$, $p < .001$).

5.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미 한인대학생의 음주문제 정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선택(Stepwise)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과 음주문제와의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지된 성별, 결혼여부, 과정, 종교, 동아리 활동 참여여부, 동거가족, 술의 종류, 흡연경험, 영어 수준 그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변수를 투입하여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전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진단하기 위한 공차한계는 0.72~0.93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확대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1.08~1.39로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검토하기 위해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한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1.62로 오차의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회귀 모형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1.65$, $p < .001$). 대상자의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beta = .129$, $p = .026$), 우울($\beta = .646$, $p < .001$), 성별($\beta = -.152$, $p = .004$), 흡연유무($\beta = -.132$, $p = .016$), 동아리($\beta = -.102$, $p = .048$)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은 대상자의 음주문제에 대해 61.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Table 4. Variables influencing Drinking Problem (N=190)

Variable	Drinking problems		
	β	t	p
Acculturative stress	.129	2.249	.026
Depression	.646	11.146	$< .001$
Gender	-.152	-2.907	.004
Current smoking	-.132	-2.441	.016
Participation of group activity	-.102	-1.996	.048
Adj. $R^2 = .613$, $F=51.65$, $p < .001$, Durbin-Watson=1.62			

논 의

본 연구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대학생들이 지각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음주문제의 정도를 조사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날로 증가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재미 한인대학생들이 지각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총점 170점 만점에 평균 73.03 ± 21.50 이고 평균평점으로는 5점 만점에 2.1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측정도구로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Koung (2010)의 연구결과 2.27보다 낮은 결과이며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Hong (2009)의 연구결과 2.58보다 낮은 결과로 이주민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보다는 재미 한인 유학생이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 유학생들은 타 문화적응 과정 속에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일정한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학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Zhang & Brunton, 2007). 그러나 본 연구에서 타 연구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게 나온 이유는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언어수준이 중, 상인 경우가 74.7%에 해당하는 것과 관련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도 생활회화만 가능한 언어수준 집단이 말하기 듣기 쓰기가 유창한 집단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설명력을 더해주고 있다. 하위 문항을 살펴보면 향수병이 평균 2.23 ± 0.65 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문화적 충격(2.22 ± 0.78), 차별감(2.22 ± 0.70)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하위문항 중 향수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Hong (2009), Koung (2010)과 Na (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향수병이 심한 학생들이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아정체감과 내적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결과(Tognoli, 2003)를 볼 때 미국 내에 거주하는 동안 향수병을 달래줄 수 있는 안정된 심리적 지지가 요구된다. 또한, 미국 내 이민자의 경우 문화충격이 알코올이나 마약남용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 결과의 원인일수 있으며 차별감을 심하게 느낄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유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Koung, 2010). 따라서 자신이 가진 문화 정체성과 미국 문화를 어떻게 동화시킬지에 대한 노력과 타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은 총점 60점 만점에 평균 17.67 ± 9.85 점으로 이는 동일 측정도구로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Ha (2010)의 연구결과 15.25점보다 높으며 같은 도구로 국내거주 중국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한 Koung (2010)의 연구결과 16.19보다 높아 재미 한인 유학생들의 우울정도가 심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따른 스트레스와 학업, 진로 문제 등에 대한 고민이 우울의 중요한 원인임을 생각할 때(Lee, 2011), 미국유학 후 불투명한 자신의 진로와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언어문제,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이 재미 한인 유학생들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학생시기 발병한 우울증은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다른 주요 정신장애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때(Lee, 2004) 유학생들의 효율적인 우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음주문제는 총점 80점 만점에 15.03 ± 15.58 점으로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로 측정한 Ha (2010)의 연구결과 4.84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Ha (2010)의 연구결과가 현저히 낮게 나온 것은 전체 대상자의 75.8%가 여학생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어 단순 비교를 하기엔 문제가 있으나 본 연구는 남자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Shin (2004)의 연구결과 14.62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최근 국내에서도 대학생들의 과도한 음주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대학생의 음주행동은 부모님의 제재 규범과 같은 행동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행동 조절이 가능하다(Shin, 2009).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유학생의 경우 부모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과 가족의 분리에서 오는 외로움, 소외감 등이 과도한 음주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정도 및 음주문제를 살펴본 결과 대상자가 지각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여부($t=5.31, p<.001$), 학년($F=3.88, p=.022$), 과점($F=8.11, p<.001$), 동거가족($F=4.01, p=.009$), 술의 종류($F=4.87, p=.003$), 흡연경험($F=2.65, p=.009$), 영어수준($F=5.12, p=.007$), 연령($r=.154, p=.034$)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Koung (2010)이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결혼상태, 언어수준, 흡연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것과 일부 일치한다. 또한, Na (2006)의 연구에서도 언어수준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Song과 Li (2008)의 연구에서도 나이가 많을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며 타지생활에 외로움을 적게 느끼는 어린나이일수록 적응이 쉽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유학생들은 학위취득이 가장 큰 목적이므로 언어의 유창성이 문화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Yen & Inose, 2003). 따라서 이들이 정해진 기간에 빨리 적응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언어와 인간관계, 타문

화 적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우울 정도는 대상자의 결혼여부($t=-4.83, p<.001$), 과정($F=11.38, p<.001$), 종교유무($t=2.60, p=.013$), 동거가족($F=3.82, p=.011$), 술의 종류($F=4.59, p=.004$), 흡연경험($t=2.38, p=.018$), 영어 수준($F=11.10,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Lee (2008)의 연구에서 우울이 언어수준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온 것과 일치하며 Koung (2010)의 연구에서 흡연이 유의하다고 나온 결과와 유사하다. 특히, 언어수준은 말하기, 듣기, 쓰기가 유창하고 수업듣기가 가능한 집단보다 생활회화만 가능한 집단의 우울이 큰 것으로 나타나 언어로 인한 소통 부재와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음주문제 정도는 대상자의 성별($t=2.35, p=.020$), 결혼여부($t=5.41, p<.001$), 과정($F=20.01, p<.001$), 종교($t=2.35, p=.023$), 동아리 활동참여여부($t=3.35, p<.001$), 동거가족($F=6.66, p<.001$), 술의 종류($F=4.39, p=.005$), 흡연경험($t=5.34, p<.001$), 영어 수준($F=20.31, p<.00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In (2010)의 연구결과 음주문제가 성별, 종교, 거주형태, 동아리 가입여부, 용돈의 규모와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온 것과 유사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동양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과 Kim (2009)의 연구에서 음주행동은 성별, 결혼여부, 직업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온 결과와도 유사하다. Koung (2010)의 연구에서도 성별, 용돈, 흡연과 음주문제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미혼의 경우 기혼보다 음주문제가 높게 나타났고 사후 분석결과 혼자 생활하는 경우 음주문제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대한 책임감과 안정감이 절제된 음주를 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종교가 있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음주문제가 높게 나온 것은 한국인의 경우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함께 마시면서 서로 친해지거나 집단 결속이 강해지고 만취하는 음주습관 보인다는 연구결과(Koung, 2010)와 맥락을 같이 한다. 많은 유학생들에게 종교와 동아리 활동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해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속적 음주행위보다 동아리 활동 후에 건전하게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절제된 음주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 된다. 또한, 종교의 역할도 단순히 한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보다는 종교단체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 흡연은 음주문제,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

울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Koung (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미국청소년의 경우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술, 담배와 같은 약물남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Kim, 2001)와 유사하며, 흡연이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주요동기로 인식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결과이다(Kim, 2001). 그러나 흡연 및 음주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문화적 인식이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Kim & Kim, 2009)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연구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상자가 지각하는 음주문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r=.506, p<.001$)와 우울($r=.672, p<.001$)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음주문제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Banta, Przekop, Haviland와 Pereau (2008)의 연구에서 고위험 음주행동이 스트레스 점수, 우울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하며, Ha (2010)의 연구에서 국내 대학생의 음주문제가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또한, Jung (2009)의 연구결과 음주문제에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상관성에 있어서도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여($r=.453, p<.001$)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Koung (2010)의 연구에서 우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개념인 차별경험이나 언어 갈등, 법적지위가 우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볼 때(Koung, 2010) 유학생 신분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받게 되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거부감이나 부당한 대우 등이 우울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미 한인대학생의 음주문제 정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선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성별, 흡연유무, 동아리 참여여부가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음주문제 영향요인을 분석한 Chung (2007)의 연구결과 우울과 과거 스트레스 경험의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Ha (2010)의 연구에서는 우울이 음주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일부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하

고 있다. 또한, Kounig (2010)의 연구에서도 성별이 음주문제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흡연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와 같이 우울, 문화적응 스트레스뿐 아니라 흡연이 유의한 음주문제 영향요인임을 볼 때 재미 한인대학생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와 금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동아리 참여 후에도 결속을 위해 마시는 음주문화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음주교육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바람직한 음주습관을 위한 방법 모색과 음주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재미 한인대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음주문제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재미 한인대학생의 건전하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한 음주 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190명의 재미 한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도되었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음주문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도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성별, 흡연유무, 동아리 참여여부가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예측하는 변인의 설명력이 61.3%로 나타나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흡연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 대학생의 경우도 매 신학기 발생하는 음주사고를 비롯하여 교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음주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정체감 형성과 타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미국 내 한인대학생의 경우 음주문제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재미한인대학생들의 바람직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결과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흡연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구체적 방안은 개인적으로는 타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제도적으로는 미국 내 먼저 정착한 동료 선, 후배간의 멘토 제도를 통하여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기 위한 개별 상담 및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나 운동 프로그램, 효과적인 인간관계

를 통해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 활성화와 금연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음주문제를 위해서 대학 내에 바람직한 음주습관을 위한 음주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제안하여 과도한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음주에 관한 교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폭음이나 고위험 음주행동을 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국내에 있는 가족들도 본 연구결과를 인식하여 성적과 경제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음주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문제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국의 중서부에 위치한 한 개의 주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이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중서부 13개주를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Banta, J. E., Przekop, P., Haviland, M. G., & Pereau, M. (2008). Binge drinking among California adults: Results from the 2005 California Health Interview survey. *The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34(6), 801-809.
- Chon, K. K., Choi, S. C., & Yang, B. C. (2001). Integrated adaptation of CES-D in Korea. *The Korea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6(1), 59-76.
- Chung, S. K. (2007). Factors influencing problem drinking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in Korea. *Mental Health & Social Work*, 27, 176-198.
- Ha, J. Y. (2010). Drinking problems, stress,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2(2), 182-189.
- Hong, M. K. (2009). *A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and dyadic adjustment of immigrant women who married to Korean me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couple's communi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In, S. H. (2010). *A study on the drinking behaviour and the prevention of drinking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 A case study of university a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 Jung, B. Y. (2009). *Relations of stress with drinking behavior and drinking related probl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 Kim, H. Y. (2005). *Activation of inducement for foreign students aiming at the internationalization of university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Ulsan, Ulsan.
- Kim, K. H. (2001). *The study of drinking, smoking, and depression among single fema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Y. B., & Kim, D. K. (2009). Influences on smoking and

- binge drinking among Asian immigrants in Californi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6(1), 93-104.
- Koung, S. Y. (2010). *The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depression and drinking problems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 Lee, E. H. (2004). Lif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ollege student: Testing for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with structural equation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9(1), 25-52.
- Lee, J. M. (2008).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foreign students' the adaptation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K. H. (2011). *The analysis of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depression and on self-efficiency the trends of personal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seo University, Chungnam.
- Lee, S. R. (1997). *A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of North Korean defe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Na, I. S. (2006). A study on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life stress among foreign students. *Korean NPO Review*, 5(2), 159-197.
- Oh, Y., Koeske, G., & Sales, E. (2002).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2(4), 511-526.
- Park, C. B. (2009). Adjustment experiences of early studying abroad in sports activity.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18(3), 371-383.
- Park, C. H. (2011, 11, 14). *One out of four Korean student in the American midwest*. Retrieved November 14, 2011, from <http://www.koreadaily.com>
- Sandhu, S. D., & Asrabadi, R. B.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 *Psychological Reports*, 75(1), 435-448.
- Shin, H. W. (1998). *The effect of personality and drinking motives on drinking problem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Shin, H. W. (2004). Relationship between ego identity development and drinking problems in college mal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7(2), 141-156.
- Shin, H. W. (2009). Perceived drinking norms and their relation to college student drinking.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4), 871-890.
- Song, W. Y., & Li, N. (2008). Chinese student's early psychological adaptation according to their acculturation type.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2), 159-173.
- Suh, B. R. (2006). *Saetomin adolescent's acculturative stress and drinking behavior: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alcohol expecta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 Ang University, Seoul.
- Tognoli, J. (2003). Leaving home: Homesickness place attachment and transition among residenc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18, 35-48.
- Yen, C., & Inose, M. (2003). International students' reported English fluency social support satisfaction and social connectedness as predictors of acculturative. *Counseling Psychology Quarterly*, 16, 15-28.
- Yoo, C. Y., & Kim, H. M. (2010).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stress and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1(4), 137-163.
- Zhang, J. L. (2009).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self-control, and emotion on internet addiction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Nonsan.
- Zhang, Z., & Brunton, M. (2007). Differences in living and learni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New Zealand.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1(2), 124-140.